

동아시아 고문헌에 나타난 정액의 생성 및 이동 경로 - 측면 장부도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승훈 · 배성철 · 김기왕*

The pathways of semen described in ancient East Asian classics - focussed on the lateral Viscera Drawings

Shin, Seunghoon · Bae, Seongcheol · Kim, Kiw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 : Due to the tendency of researchers to avoid anatomical approach to East Asian medical classics, their ideas on seminal pathways have not been clearly reconstructed yet. So we tried to concretely reconstruct the pathway of semen described in ancient East Asian classics.

Methods : Besides analysing the literal description about seminal pathways, we gathered and classified the ancient Viscera Drawings drawn in East Asian countries - especially the drawings in lateral view, and morphologically analysed them with some literal material.

Results : We found that there were 3 major streams in the ancient Asian ideas on the seminal pathways. The first one was the modality originated from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which suggested the semen flew out of the kidney. The second one was the modality arose under the influence of Taoist thinking, which suggested the semen was originated from the brain and spinal cord. The last one was revision of the first modality by Janggaebin(張介賓), which asserted semen was originated from the kidney, but was ejaculated via Myeongmun(命門).

Conclusion : On the seminal pathways, there had been 2 types of ideas focussing on kidney and one idea focussing on brain and spinal cord in East Asian tradition.

Key Words : Jeong(精), Jing(精), semen, Viscera Drawing(臟腑圖), brain, Kidney(腎)

* 교신저자 : 김기왕.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로 49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415호
TEL : 051-510-8466, E-mail : kimgiwang@hanmail.net

접수일(2012년 4월 27일), 수정일(2012년 5월 8일),
게재확정일(2012년 5월 17일)

I. 서론

서양의학이 동아시아에 전래된 이후 한의학의 장기 개념은 현대의학의 장기 개념과 다르다는 주장¹⁾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한의학의 생리학설 역시 인체를 구성하는 실체와 무관하게 기능적 단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옛 사람도 실물로서의 음식물이나 체액의 이동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황제내경·영추(靈樞)』의 『평인절곡(平人絶穀)』편이나 『장위(腸胃)』편 등에 보이는 음식물과 관련된 위장관의 해부학적 설명은 고인들 역시 실제적 요소에 바탕을 한 사유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체의 이동에 대한 고인들의 생각은 정, 기, 신, 혈, 진액 등의 생리학설에 무시할 수 없는 배경적 지식을 형성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인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체액 중 하나인 정액의 생성과 이동, 변화에 대해 고인들이 어떤 구상적(具象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정액의 생성·전환 및 이동 경로에 대한 고인들의 생각은 문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여러 문헌의 내장 도해 자료, 즉 장부도(臟腑圖) 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문자적 기록과 함께 고서에 등장하는 장부도를 계통별로 정리하여 정액의 생리에 관해 고인들이 생각했던 바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정액의 명칭

한의학에서 정액을 의미하는 글자는 정(精)이다²⁾. 그런데 한의학에 등장하는 정(精) 자는 반드시 정액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명사로서의 정 자는 정액이 아닌 의미로 사용될 때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은 3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할 수 있다. 첫째는 순수한 성분이나 균질한 성분 또는 재료가 되는 소재로부터 정제 과정을 거쳐 추출된 요소를 의미하는 경우인데, 정이 포괄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대개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³⁾. 이러한 의미의 정(精) 자는 조(粗) 자와 대(對)를 이루는 글자다. 둘째는 이상에서 설명한 정과 그 의미를 공유 하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 내부에 간직된 핵심 요소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다. 이 경우의 정 자는 형(形)에 상대가 되는 글자다⁴⁾.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의미를 공유하면서, 사기에 상대되는 기, 즉 정기(正氣)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다⁵⁾. 당연히, 이러한 경우의 정 자는 사(邪) 자와 대비를 이룬다.

한편 정액은 한의서에서 대개 ‘정’으로 표현되지만 때로 ‘정기(精氣)’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황제내경·소문(素問)』의 『상고천진론(上古天真論)』에서는 남성의 사춘기 신체 변화를 설명하며 정액을 “정기(精氣)”로 표현하였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과 정기란 표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 문헌의 정액 생리에 관한 기록을 탐색해 보았다.

2. 정액의 생성과 저장

2.1 초기의 생각

『황제내경』에서 정액의 전체 생성 과정은 분명하게

1) 예를 들어 청말·중화민국 초기의 유명한 의가였던 운철초(惲鐵樵)는 『군경견지록(群經見智錄, 1922)』에서 “『내경』의 오장은 혈육의 오장이 아니다(『內經』之五臟非血肉的五臟)라고 하였다.

2) 예를 들어 “恐懼而不解則傷精, 精傷則骨痠痿厥, 精時自下”(黃帝內經·靈樞·本神)와 같은 문장에 등장하는 “정(精)”이 그 예에 해당한다.

3) 예를 들어 “夫水之精爲志, 火之精爲神”(黃帝內經·素問·解精微論), “食氣入胃, 散精於肝”(黃帝內經·素問·經脈別論)과 같은 문장에서의 “정(精)”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의 정은 “정미(精微)”라는 말로도 표현된다. 예를 들어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黃帝內經·靈樞·營衛生會)과 같은 문장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4) 예를 들어 “天有精, 地有形”,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또는 “形精之動, 猶根本之與枝葉也”(黃帝內經·素問·五運大論)와 같은 문장이 그 예다.

5) 예를 들어 “今邪氣交爭於骨肉而得汗者, 是‘邪却而精勝’也”(黃帝內經·素問·評熱病論), “鍼與氣俱出, 精氣不傷, 邪氣乃下”(黃帝內經·素問·調經論)와 같은 문장이 그 예다.

6) 二八, 腎氣盛, 天癸至, 精氣溢寫, 陰陽和, 故能有子.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다른 장부로부터 신장에 전달된 물질이 신장에 간직되어 있다가 배출되는 것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황제내경·소문』의 「상고친진론」에는,

신장은 수분을 관장하며 오장육부의 정(精)을 받아들여 저장한다. 그러므로 오장이 가득 차 있어야 사정을 할 수 있다⁷⁾.

라고 하여 오장육부의 정⁸⁾이 신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책의 「육절장상론」(六節藏象論)에는,

신장은 침거와 붓페, 함장을 주관하는 근본적 기관이며, 정(精)의 처소이다⁹⁾.

라고 하여 정액이 머무는 곳이 신장이라고 하였다. 『난경』에서는 좌우 신장의 역할을 나누어, 그 중 오른쪽이 ‘명문(命門)’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바로 이곳에 정액이 저장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명문은 모든 정과 신이 머무는 곳이다. 남자는 이곳에 정액을 저장하고 여자는 이곳을 통해 자궁과 연계한다¹⁰⁾.

라고 하여 정액이 명문, 즉 오른쪽 콩팥에 저장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에 관련된 고문헌의 언급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정액은 되도록 배출하지 말고 잘 간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¹⁾. 그러한 설명을 보면 고인들은 정액이 한 번 형성된 후 재생성 없이 소모만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천금요방(千金要方, 652)』에는,

여러 번 성교를 하고 한 번만 사정을 하면 정액이 굳어지므로 고갈되지 않는다. 만약 여러 번 성교하지 않고 교접하자마자 바로 사정을 하면 정을 보낼 수가 없게 된다. 쏟아낸 정액은 저절로 생성되지만 속도가 늦고 그 양이 적어, 여러 번 성교하고서도 사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빨리 보충되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¹²⁾.

라고 하여 정액이 배출된 후에 자연스럽게 재생성된다고 하였고 원대의 도사인 진치허(陳致虛, 1290~?)의 저작 『금단대요(金丹大要)』에는,

(정액은) 몸 전체를 통틀어 1되 6홉(후한 기준으로 약 317ml)이 있다 ……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분이 정액이 된다 …… 1회 성교할 때 반 홉(후한 기준으로 약 10ml)이 소실된다. 소실되는 양이 적으면 시일이 지나면서 곧 보충된다¹³⁾.

라고 하여, 정액의 총량과 1회 소모량(배출량)을 구체적으로 밝힘¹⁴⁾과 동시에 정액이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사정 후에 다시 보충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정액이 신장에 저장된다는 생각은 19세기까지도 동아시아 의학계의 주된 관점이었던 것 같다. 일례로 일본의 코사카겐유(小坂元祐)가 편찬한 『경혈찬요(經穴纂要, 1810)』에는,

신장을 횡으로 절단하여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은 색이 하얗게 되어 있어 사람의 정액 같고 냄새도 정액과 비슷하며 여러 개의 공동(空洞)이 있는데 이곳이 아마 정액이 머무는 곳 아닐까 싶다¹⁵⁾.

라고 하여 신장에 정액이 저장된다는 생각이 당시까지 보존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腎者主水, 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故五藏盛, 乃能瀉。
8) 이것이 정액 자체인지, 정액의 전구물질인지는 불확실하다. 이천(李樾)의 『의학입문』(1575)에서는 정액 자체라고 보았다(五臟各有精, 隨用而灌注於腎, 此乃腎爲都會關司之所, 非腎一臟而獨有精, 故曰‘五臟盛乃能瀉’也)。
9) 腎者, 主蟄封藏之本, 精之處也。
10) 命門者, 諸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難經 39難)
11) 예를 들어 허준(許浚, 1539~1615)은 『동의보감·내경편(內景篇)·정(精)』에서 “정은 잘 간직해야 한다(精宜秘密)”, “육망을 절제하여 정을 축적한다(節慾儲精)”와 같은 표제 아래 역대 의론(醫論)과 처방을 정리하였다.

12) 數交而一瀉, 精氣隨長, 不能使人虛也。若不數交, 交而即瀉, 則不得益。瀉之精氣自然生長, 但遲微, 不如數交不瀉之速也”(千金方·房中補益)
13) 在身中通有一升六合, …… 日啖飲食之華美者爲精, …… 凡交一次則喪半合。所喪者少, 即隨日生而補之。(金丹大要·上藥·精氣神說)
14) 이곳에 제시한 정액의 배출량을 원대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지나치게 많은 양(약 47ml)이 되어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진치허의 이 설명은 고대의 어떤 문헌에서 옮긴 것이라 생각된다.
15) 橫剖腎觀之, 中間色白如人精, 臭亦相類, 有數窠, 疑是精液所留乎。(經穴纂要·內景·腎全狀前面之圖)

2.2 도가 학설의 대두

『내경』이나 『난경』과 같은 한대의 의학 문헌에서 신장을 정액의 저장소로 보았고 이러한 관점이 오래도록 주류를 형성하였지만, 후대의 어떤 문헌에서는 정액의 저장 위치나 생성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본 예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원방(巢元方)의 『제병원후론』(610)에서는 “옥방(玉房)”이란 곳에 정액이 저장된다고 보았다. 이 책에서는 실전(失傳) 의서 『양생방』을 인용하여,

정액은 옥방에 저장되는데, 성교를 너무 자주 하면 정이 소실된다¹⁶⁾.

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옥방이 어느 곳인지 소원방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송의 『성제총록(聖濟總錄)』에서는 단전(배꼽 아래 3촌)이라고 하였다¹⁷⁾.

명대에 이르면 “정실(精室)”(대략 전립선 위치에 해당)에 정액이 저장된다는 설이 나타난다. 오곤(吳昆, 1552~1620)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설명은 장개빈(張介賓, 1563~1640)을 거쳐 청말 당종해(唐宗海, 1846~1897)에 의해 구체화된다¹⁸⁾¹⁹⁾.

정액의 생성과 저장에 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위진 시대 이후 대두된 도가의 정액 생성론이다.

갈홍(葛洪, 284~364)은 그의 저서 『포박자(抱朴子)』에서

방중의 방법에는 십여 가지 계통이 있는데, …… 그들의 요점은 오직, 정액을 되돌려 뇌를 보충하는 데 있다²⁰⁾.

라고 하여 이른바 ‘환정보뇌(還精補腦)’의 방법을 방중술의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액을 되돌려 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으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정액이 뇌에서 기원한다고 간주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도가의 문헌에는 그러한 생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명대 후기의 양도생(陽道生)은 『진진(眞詮)』에서

남녀가 성교를 할 때 이 원기가 변화되어 정액이 되고 뇌[泥丸]로부터 척수를 따라 내려와 방광·외신(고환)에 이르러 배출된다²¹⁾.

라고 하여 뇌와 척수로부터 정액이 생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진』의 설명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바로 정액이 원기로부터 형성된다는 생각이다. 저자 양도생은 위의 인용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교 시점에서 원기가 정액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소에 체내에는 정액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²²⁾.

이처럼 성교 시점에 원기가 정액으로 변화한다는 『진진』의 설명은 『동의보감』에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선의 허준(許浚, 1539~1615)은 『동의보감』에서 『진진』을 인용하되 그 내용을 상당히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오장 각각에는 저장된 정액이 있으나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전래, 사람이 성교를 하기 전에는 정액이 혈액에 함유되어 있어 그 형태가 없다가 성교를 하여 욕망의 불이 극에 달하면 전신을 흘러 다니던 혈액이 명문에 이르러 정으로 변화되어 배출되는 것이다²³⁾.

16) 精藏於玉房，交接太數則失精。(諸病源候論·風病諸候·風驚候)

17) 玉房，在臍下三寸是。(聖濟總錄·神仙服飴門·神仙服氣上)

18) 章增加，試論精室理論的源流、實質及其意義—兼與精室舉丸論商榷。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2008。14(11)。p.826.

19) 그러나 고조왕(高兆旺) 등은 『황정내경경(黃庭內景經)』과 『운급칠첩(雲笈七籤)』에 등장하는 ‘정실(精室)’(=하단전)이 당종해로 이어지는 정실 논의의 시작인 것으로 보았다. 高兆旺，張麗，劉慶申，論精室的解剖與生理。山東中醫藥大學學報。2002。26(5)。p.330.

20) 房中之法十餘家，……其大要在還精補腦之一事耳。(抱朴子·釋滯)

21) 男女交感，此元氣化而為精，自泥丸順脊而下至膀胱外腎而施泄。(眞詮·闡發元精即淫洩之精)

22) 凡人未交感時身中無處有精。醫書云‘腎為精府’，又云‘五臟各有藏精’，其實并無有精停泊於其所。(眞詮·闡發元精即淫洩之精)

23) 五臟各有藏精，并無停泊於其所。蓋人未交感，精涵於血中，未有形狀。交感之後，慾火動極，而周身流行之血至命門而變為精以泄焉。(東醫寶鑑·內景篇·精)

이처럼 그는 『진진』에서 나타난 ‘원기→정액’ 형태의 정액 생성 도식을 ‘혈액→정액’ 형태의 도식으로 바꾸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위 인용문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허준은 정액이 다시 혈액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즉,

그러므로 사람이 쏟아낸 정액을 그릇에 담아 약간의 소금과 술을 섞고 하룻밤을 한 데에 두면 다시 혈액이 된다²⁴⁾.

라고 하여 혈액과 정액은 상호간 가역적으로 전화될 수 있는 물질임을 밝히고 있다²⁵⁾.

2.3 정액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의 전개

혈액이 정액으로 전화된다는 생각은 동의보감에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송대에 이루어진 관 주도의 인체 해부 결과를 기록한 양개(楊介)의 『존진도(存眞圖, 1113)』는 비록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후대의 여러 책에 그 사본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사본이 일본의 『만안방(萬安方, 1315)』에 실린 장부도(그림 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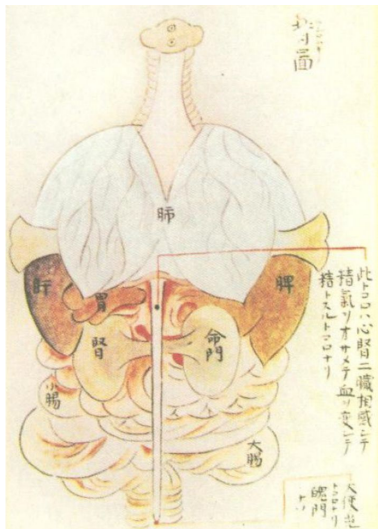


그림 2. 『만안방(萬安方)』의 배면 장부도

24) 故以人所泄之精貯于器，伴少鹽酒，露一宿，則復爲血矣。(東醫寶鑑·內景篇·精)

25) 『도장(道藏)』에 수록된 현행본 『진진(眞詮)』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이 장부도를 살펴보면 등의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주행하고 있는 기다란 맥관²⁶⁾에 대한 설명이 그림 오른쪽에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이곳은 심장·신장 두 장이 서로 감응하여 정기를 거두어 혈액을 변화시켜 정액이 되게 한다²⁷⁾.

이와 같은 것으로서, 이 문장은 『존진도』의 여러 사본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표 1 참조), 이를 보면 송대에 이미 혈액이 정액으로 전화된다는 설의 의학계에 통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 『존진도』 배면 장부도의 여러 사본에 나타난 배면 중심부 맥관에 관한 설명문

출전	원문
萬安方(1315)	此トコロハ心腎二臟相感ンテ精氣ソオサメテ血ソ變ンテ精トスルトマロナリ.
頓醫抄(1303)	其系上貫於心，下通於腎。此處心腎二臟相感，精氣收血…(京師大學所藏本은 萬安方 기재 내용과 동일)
幻雲(1460~1533)의 史記 주해	其系上貫於心，下通於腎。心腎水火相感而精氣溢瀉，乃化血收精系也。
銅人腧穴針灸圖經(明刊本)	其系上貫于心，下通于腎。心腎水火相感而精氣溢泄，乃血收精之系也。
凌門傳授銅人指穴(清乾隆抄本)	其系上□于心，下通於腎。心腎水火相感而精氣溢泄，乃收血化精之系也。

그러나 대동맥이라 생각되는 그림 1의 맥관에서 정액이 생성된다는 생각이 의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진 생각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그러한 설명을 여타의 의서에서 찾기 어렵고, 성교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정액의 생성에 관해 의견상 이와 다른 형태의 설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2에 소개한 장부도들은 원대의 의가(滑壽 또는 忽公泰=忽泰必烈)가 그렸다고 추정²⁸⁾되는 장부도로서,

26) 대동맥으로 생각된다.

27) 此トコロハ心腎二臟相感ンテ精氣ソオサメテ血ソ變ンテ精トスルトマロナリ.

28) 황룡상(黃龍祥)은 실전(失傳) 의서인 홀공태(忽公泰)의 『금란순경(金蘭循經, 1303)』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의 그림 중 어떤 그림(예: 그림 2의 ②)에는 이 그림의 원도를 활수(滑壽)가 작성하였다고 명시한 예도 있다. 黃龍祥 編. 中國針灸史圖鑑. 靑島. 靑島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포되어 온 장부도인데 그림 하단의 정액 출구 위치에 첨가된 글을 보면,

마음을 흔들면(성욕이 일어나면) 명문을 움직이게 되고(명문이) 삼초의 정기를 빨아들여(정액이) 이곳에서 배출된다²⁹⁾.

라고 하여 표 1에 정리한 설명과는 사뭇 다른 설명을 제시하였다. 한편 유사림(劉仕廉)의 『의학집성(醫學集成, 1873)』 장부명당도(그림 3의 ⑦)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이러한 설명이 등장하고³⁰⁾, 비슷한 문장이 『의학입문(醫學入門, 1575)』의 장부도(그림 10의 ②)에도 나타나는데³¹⁾, 이 설명에 등장하는 삼초 → 명문 → 요도구의 정액 생성·이동 도식은 북송시대에 이미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송팔대가의 한 명이자 소동파(소식)의 동생인 소철(蘇轍, 1039~1112)은 『용천약지(龍川略志)』 권2의 「의술론삼초(醫術論三焦)」라는 논설에서,

때마침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여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기는 삼초에 산재하여 전신의 뼈를 자양한다. 그러다 성욕이 솟구치고 마음의 불길이 타오르면 삼초의 정기를 빨아들여 명문에 주입하고 쏟아내 배출케 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 부(腑)를 삼초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³²⁾

라고 하여, 성욕이 타오를 때 정액을 모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초에 “초(焦)”란 호칭이 붙었다는 설명과 함께 위에서 이야기한 삼초 → 명문 → 요도구 순서의 정액 배출 과정을 제시하였다.

소철이 제시한 설명은 남송 진언(陳言, 1131~1189)의 『삼인극일병증방론(三因極一病證方論, 1174)』에 거의 그대로 나타나며³³⁾ 아울러 진언은 정액의 부(腑)라는 뜻에서 삼초를 정부(精腑)라고 칭하였다.

出版社. 2003. p.67.

29) 搖心旌則動命門，吸撮三焦精氣，從此泄矣。(醫學綱目·臟腑明堂圖)

30) 搖心旌則欲動，命門三焦之精從此泄矣。

31) 搖心精則動命門，吸撮三焦精氣，從此泄矣。

32) 方人心湛寂，欲念不起，則精氣散在三焦，榮華百骸。及其欲念一起，心火熾然，翁撮三焦精氣，入命門之府，輸寫而去，故號此府爲三焦耳。

33) 方人湛寂，欲想不興，則精氣散在三焦，榮華百脈。及其想念一起，欲火熾然，翁撮三焦精氣，流溢，並命門，輸瀉而去，故號此腑爲三焦耳。(三因極一病證方論·卷八·三焦精腑辨正)

이처럼 소철, 진언의 정액 생성론은 소위 “장부명당도”라는 제목의 그림들(그림 2, 그림 3)에 부기(附記)로서 반영되어 있지만, 문자적 표현의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서 말한 대동맥에서 정액이 생성된다는 생각과 대립되는 생각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소철, 진언 등 명문에서 정액이 배출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대동맥의 일부 경로가 명문에 연결되어 정액의 배출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정액의 이동 경로

정액의 생성과 이동에 대한 고인들의 생각은 그들이 남긴 여러 장부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장부도는 크게 정면 장부도, 배면 장부도, 측면 장부도와 개별 장부도(장부 하나하나를 따로 그린 그림)의 4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액의 통로는 측면 장부도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역대의 측면 장부도³⁴⁾를 모아 이들을 중심으로 정액의 이동 경로에 관한 고인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3.1 신장에서 출발하는 정액의 통로

앞서 설명하였듯이 『황제내경』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계의 주된 관점은 정액이 신장에 간직되어 있다가 배출된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장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측면 장부도의 상당수가 정액의 신장 기원설을 지지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4는 모두 원대(元代)의 어떤 문헌²⁸⁾에서 기원한 장부도인데 이 그림을 보면 신장에서 출발한 관이 신장을 거쳐 요도구 부근으로 나오는 것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정액이 신장에서 배출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예라 할 수 있다.

34) 측면 장부도는 고문헌에 ‘내경도(內境圖)’, ‘내경도(內景圖)’, ‘내조도(內照圖)’, ‘장부명당도(臟腑明堂圖)’, ‘내경측면도(內境側面圖)’, ‘측신인도(側身人圖)’, ‘측인장부도(側人臟腑圖)’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한다. 여기서는 측면 장부도란 이름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심장 → 신장 → 요도구의 연결 구조는 그림 4에 소개한, 그림 2, 3으로부터 변형된 장부도에도 그대로 나타나며 명대 『인경경(人境經=臟腑證治圖說人鏡經)』의 “측신인도(側身人圖)”와 유사한 장부도(그림 5 상단)에도, 그리고 몇몇 도가 서적에 “내조도(內照圖)”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림들(그림 5 하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장부도는 모두 우측면도로서 여기에 그려진 신장은 모두 오른쪽 콩팥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내경』의 설명뿐만 아니라 『난경』에서 오른쪽 콩팥이 명문이며 여기에 정액이 저장된다고 한 설명과도 잘 부합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인체의 좌측면을 그린 측면 장부도에도 심장 → 신장 → 요도구의 연결 구조는 그대로 나타난다. 그림 6의 ①~④는 『침구취영(鍼灸聚英, 1529)』의 측면 장부도와 유사한 그림이고 ⑤와 ⑥은 그림 2, 3에 소개한 소위 장부명당도를 좌우 반전시켜 그린 그림으로 보이는데, 이들 모두 심장 → 신장 → 요도구의 연결 구조를 그림에 표현하고 있다.

인체 좌측면을 그린 장부도 가운데에는 이 두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바로 그림 7의 ①에 소개한 한국 허준박물관 소장인 장부도이다. 이 그림은 경혈도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림 1~2에 나타난 ‘장부명당도’의 형태를 따랐을 법한 장부도인데 통례와 달리 심장과 허파의 묘사에서 『동의보감』의 개별 장부도 형태를 따르고 있고 척추에도 『동의보감』 ‘신형장부도’에 기재된 삼관(三關: 玉枕關, 轆轤關, 尾閭關)을 적어 두었다. 게다가 측면 장부도에서 신장과 명문, 또는 좌측 신장과 우측 신장을 구분하지 않고 “신(腎)”으로만 표기하는 것이 통례인데(그림 3의 ㉑은 예외), 이 그림에서는 신장과 명문을 모두 그려 두었고 그 성격에 따라 색깔도 달리 하였다. 정액의 통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그림에서 정액의 통로를 우측 신장, 즉 명문이 아닌 좌측 신장에 연결되는 것으로 분명히 그렸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조선 후기의 의가들이 정액이 꼭 우측 신장에만 저장된다는 설을 고집하지는 않았으리란 추측을 할 수 있다.

측면 장부도 가운데는 그 계통을 추적하기 어려운

기타의 작품들(그림 7의 ②~⑤)도 있는데 이들도 대체로 심장 → 신장 → 요도구의 연결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다만 그림 7의 ④는 뇌와 척수로부터 뻗어 나온 관이 꼬리뼈에서 정지하지 않고 전면부로 좀 더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적인 것이다.

한편 그림 2, 3에 소개한 소위 장부명당도와 같은 구도를 가진 그림 가운데에는 뇌로부터 꼬리뼈에 이르는 통로(즉 “髓”의 통로)를 위에서 말한 심장 → 신장 → 요도구의 통로와 결합하여 묘사한 것도 있다(그림 8의 ①, ②). 이는 후술할 도가의 정액 기원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통로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아래에서 이러한 도가의 영향을 받은 정액 기원설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3.2 뇌 및 척수에서 출발하는 정액의 통로

정액이 신장에 저장되어 배출된다는 『황제내경』의 설명은 대체로 동아시아 의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였다고 생각되지만 갈홍(葛洪, 284~364)의 『포박자(抱朴子)』에서 이른바 환정보뇌설(還精補腦說)을 제시한 이래 뇌와 척수가 정액으로 바뀌어 배출된다는 도가의 설명은 끊임없이 의학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부도에도 나타나 있는데, 도가적 색채가 분명한 소위 “연라도(煙蘿圖)” 계열의 장부도(그림 9)에도 나타나 있고³⁵⁾ 우리나라의 고의서에 비교적 자주 보이는 『의학입문』 장부도와 동형(同形)인 장부도(그림 10) 및 그와 유사한 장부도(그림 11)에도 분명히 묘사되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의학입문』 장부도의 원형이었으리라 생각되는 『화타현문맥결내조도(華佗玄門脈訣內照圖)』의 장부도에는 뇌 → 척수 → 요도구로 이어지는 맥관에 심장에서 기시하여 신장을 거쳐 내려온 맥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은 『의학입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그림 11 하단 도해 참조). 그리고 재미있게도 『화타현문맥결내조도』의 새로운 사본에서는 이러한 장부도가 원래의 장부도를

35) 참고로 말하자면, 연라도에서는 신장에서 기시한 맥관이 요도구에 연결되지 않고 하단전(下丹田)으로 연결된다. 그림 9 상단 우측 도해 참조.

아예 대체해 버렸다(그림 10의 ③). 이는 『의학입문』 장부도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³⁶⁾.

측면 장부도 중에는 정액 통로의 묘사가 불분명한 것도 있다(그림 12). 비록 『동의보감』의 경우 본문에서 뇌 → 척수 → 요도구로 이어지는 도가적 시각의 정액 통로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³⁷⁾ 이러한 장부도가 정액의 이동에 대해 어떠한 구조를 가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고찰이 필요하다.

3.3 신장 기원설의 복권

이처럼 도가에서 유입된 이질적인 정액 기원설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것은 『황제내경』 중심의 생리학설을 견지했던 의가들에게 어떠한 정도로든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실제로 장개빈(張介賓, 1563~1640)의 『유경도익(類經圖翼, 1624)』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유경도익』 내경도(內景圖)의 부기(附記)를 보면(그림 13의 ①),

옛 그림에는 정액의 통로가 척추를 지나 항문을 통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는 이치상 심히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옛 그림에는 자궁·명문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은 모두 중요한 요소를 빠뜨린 것이다. 이제 이들을 고쳐 바로잡는다.³⁸⁾

라고 하여 정액의 척수기원설을 지지하는 장부도 들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정액 배출에 관계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오른쪽 콩팥이 아닌 별도의 장기인 명문(命門)을 제시하였다. 장개빈의 이러한 설명은 그간 의학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쳤던 도가의 정액 생성론으로부터 『황제내경』 기원의, 의가 본래의 정액 생성론을 복권(復權)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 된다.

36) 그러나 정작 『의학입문』 본문에는 정액의 신장 기원설을 지지하는 설명도 나타나며 정액 통로의 묘사 역시 그림과 일치하지 않는다. 『의학입문』 장부도의 원형이 된, 더 이른 시기의 그림이 존재하였고 이를 이천(李樾)이 그대로 옮겨 그린 것 아닌가 한다.

37) 上至腦，下至尾骶，皆精髓升降之道路也。(東醫寶鑑·外形篇·頭의 『醫學入門』 인용문)

38) 舊圖有精道循脊背，過肛門者，甚屬非理，而且無子宮命門之象，皆大失也。今改正之。

장개빈이 그린 내경도는 이후 동아시아 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일본 에도 시대의 장부도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그림 14, 15 참조). 다만 우리나라의 문헌에는 비교적 늦게 나타난다(19세기 18 그림 13의 ③, 일제시대 18 그림 17의 ①~③).

흥미롭게도 장개빈의 내경도에 나타난 정액 통로는 17세기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몇몇 인체 내장 모형(그림 18 하단의 ①~③)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장부도들의 계통을 정리하면 그림 19와 같다. 이러한 장부도의 계통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정액의 통로를 인식하는 데 대체로 세 개의 큰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황제내경』에서 기원한 의학계 본래의 정액 기원설, 즉 신장 기원설이며, 둘째는 위진 시기 이후 의학계의 주변부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도가 중심의 정액 기원설, 즉 뇌척수 기원설이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명대의 의가 장개빈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형태의 정액 기원설, 즉 제2형의 신장 기원설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인의 정액 통로에 대한 인식은 의가설(醫家說)에서 출발하여 도가설(道家說)에 얼마간 경도되었다가 다시 의가설로 회귀한,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서 현대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본 논고에서는 정액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몇몇 주요한 고문헌과 역대의 측면 장부도를 검토하여 정액의 생성과 배출 과정에 대한 고인들의 생각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인들은 정액이 음식물로부터 생성되며 배설 후에 보충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황제내경』에서는 정액이 신장에 저장되어 있다가 배출된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동아시아 의학계의 정액에 관한 사유의 근간을 형성하였다.

셋째, 위진 시기 이후 뇌척수의 실질이 정액으로 변화되어 배출된다는 도가의 생각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의학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장개빈(張介賓)은 도가의 생각을 비판하고 전립선 부위 또는 자궁이 소위 명문에 해당하며 신장으로부터 이곳 명문을 거쳐 정액이 배출된다고 설명하였다.

정액의 생성과 배출 경로에 대한 동아시아인의 생각은 이처럼 위의 둘째, 셋째, 넷째 항에 설명한 세 가지 형태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고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현대 생리학과 일치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고문헌의 묘사를 비유적 설명으로 해석함으로써 현대 생리학과 무리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상적(具象的) 장기관(臟器觀)을 분명한 근거 위에 재구성하는 작업이 오히려 고인들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가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 본 연구가 동아시아 고대 생리학설의 온전한 재구성과 심화된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정액의 신장 기원설 지지 장부도/제1계열

I.a₁ 『의학강목』 장부명당도와 同形인 장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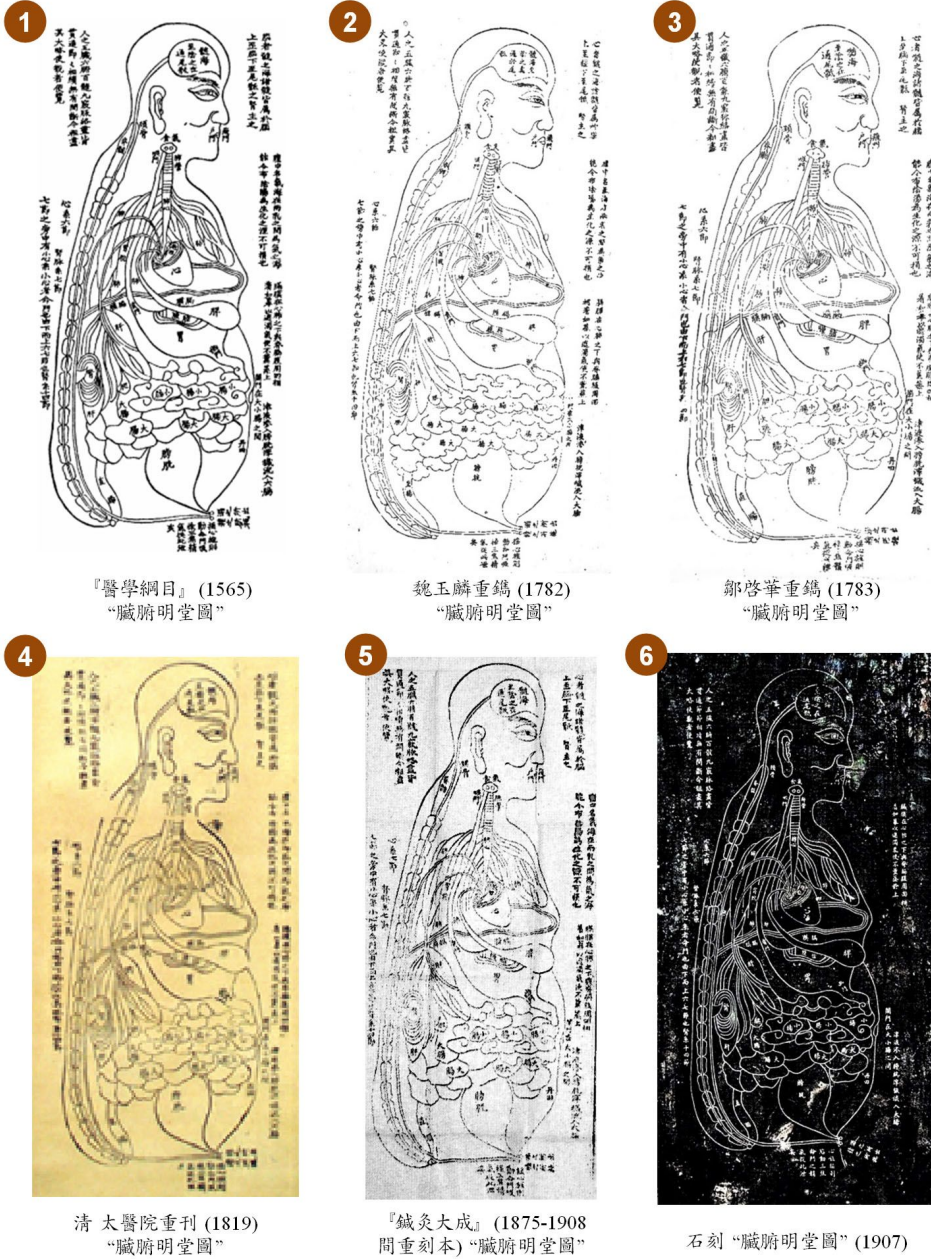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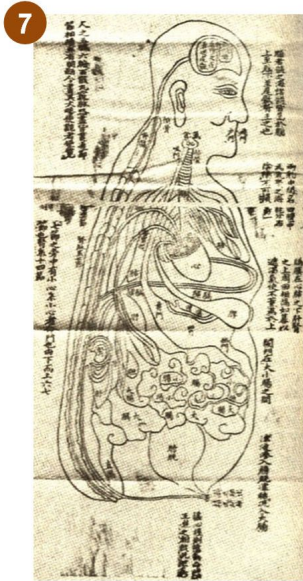


그림 3.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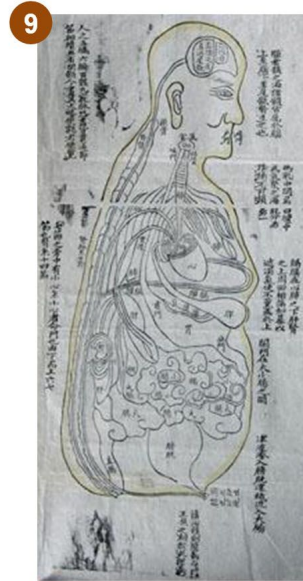
I.a₁ 『의학강목』 장부명당도와 同形인 장부도(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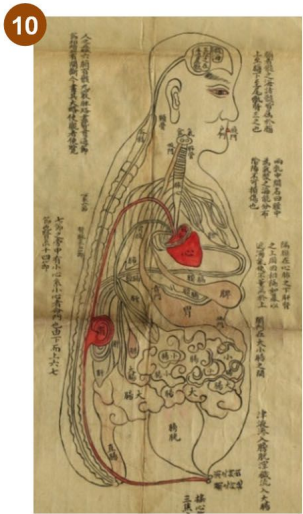
『醫學集成』(1873初刻, 1914重印本) “臟腑明堂圖”



조선 “臟腑明堂圖” (안동옥선)



半彩色 “臟腑明堂圖” (百度百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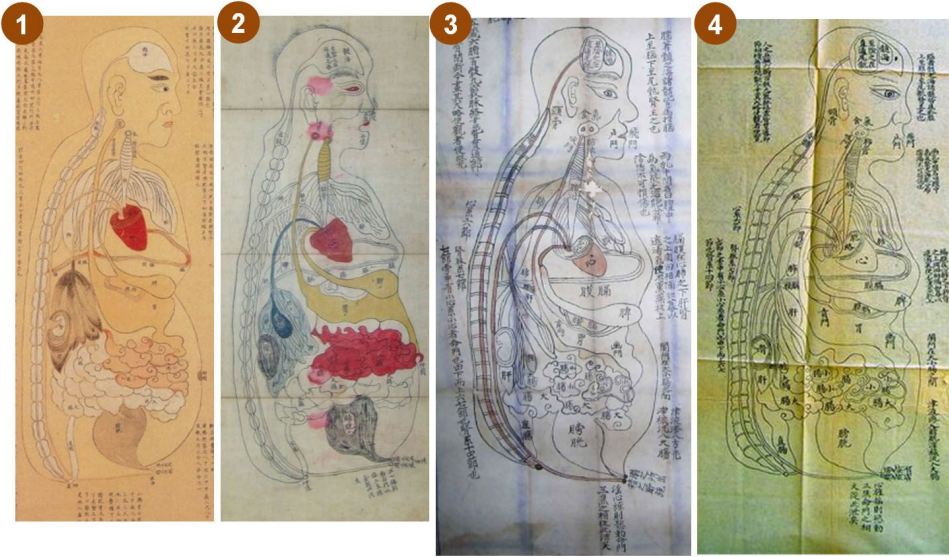
국적 미상의 부분 채색 장부명당도 (조선닷컴 블로그)



家藏本 清代 채색 장부명당도 (巴蜀論壇)

그림 4.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2)

I.a₂ 『의학강목』 장부명당도와 유사한 장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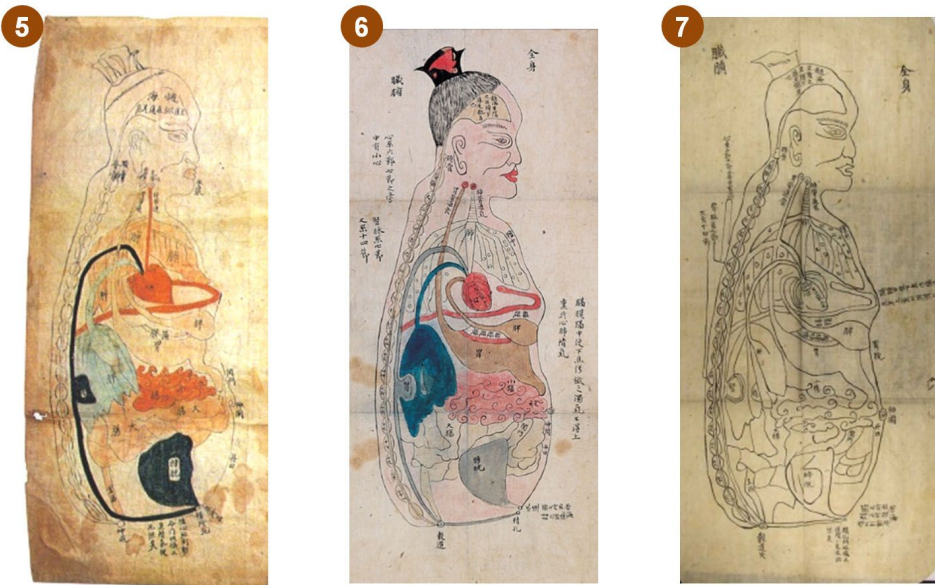


1 청대 후기의 채색 “臟腑明堂圖” (看中國網)

2 저자-연대 미상 “身形全圖” 내 장부도 (흔옥선)

3 저자-연대 미상 “臟腑明堂圖” (금요고서방)

4 중화민국 초기(1915)의 “臟腑明堂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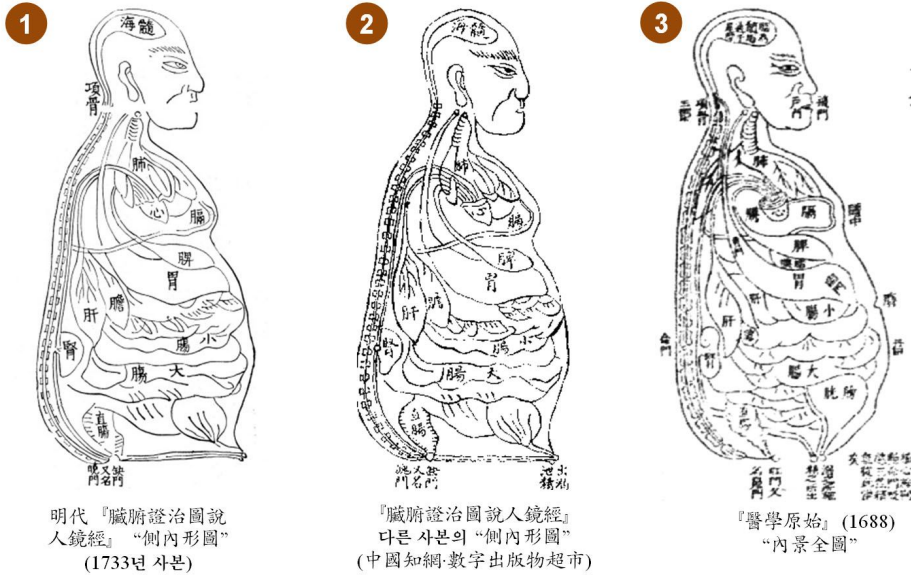
5 조선 후기(추정)의 채색 장부명당도 (동양의학대사전)

6 조선 후기(추정)의 채색 “全身臟腑”圖 (경기대학교 박물관)

7 조선 후기(추정)의 “全身臟腑”圖 (화봉문고)

그림 5.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3)

I.b 『인경경』 측내형도와 흡사한 장부도



I.c “내조도” 계열 장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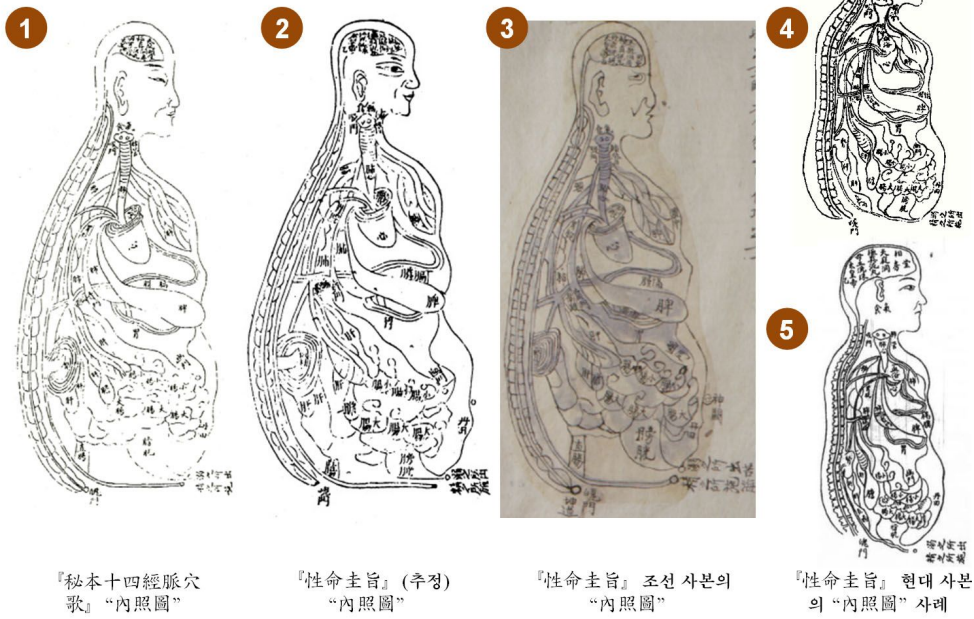


그림 6.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4)

I.d 정액의 신장 기원설을 지지하는 장부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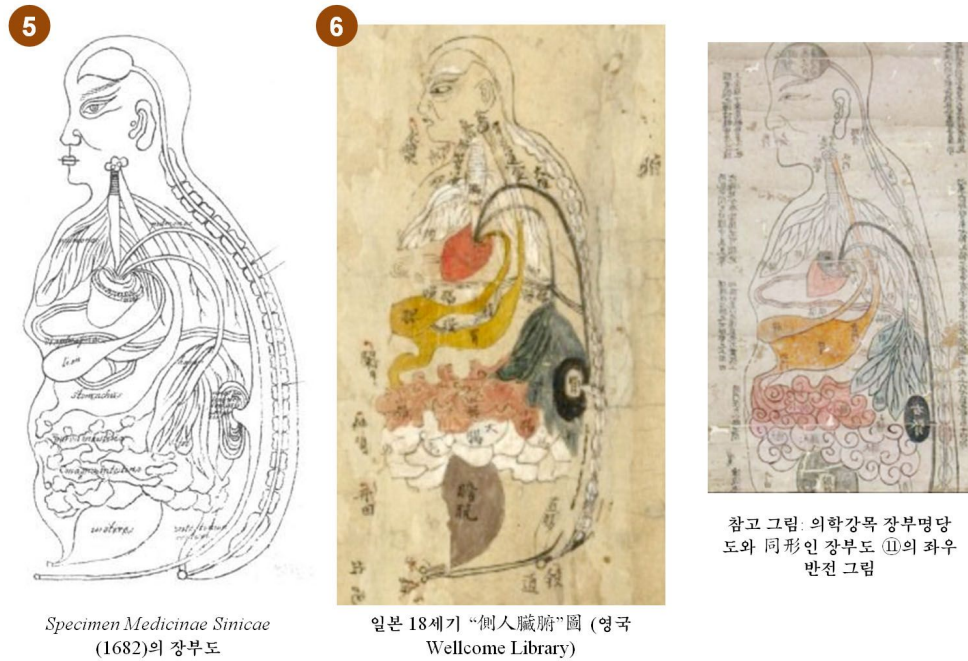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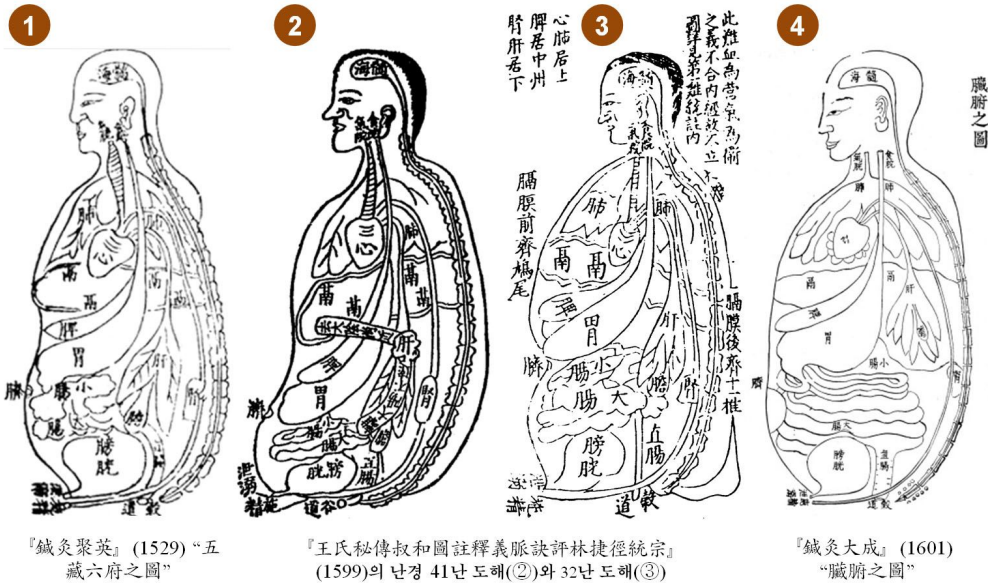


그림 7.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5)

I.e 정액의 신장 기원설을 지지하는 기타 형태의 장부도들



그림 8.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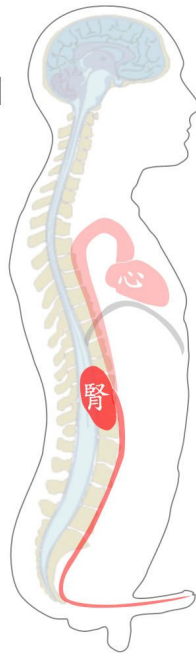
I'. 정액의 신장 기원설을 지지하는 장부도 제1계열의 변형(융합형)



좌(①): 淸·葉贊彤의 “臟腑明堂圖”(1876)

우(②): 民國시기의 “장부명당도”
 (상해고적서집)

신장 기원 1
 계열 장부도의
 정액 통로



신장 기원 1
 계열 변형(융
 합형) 장부도
 의 정액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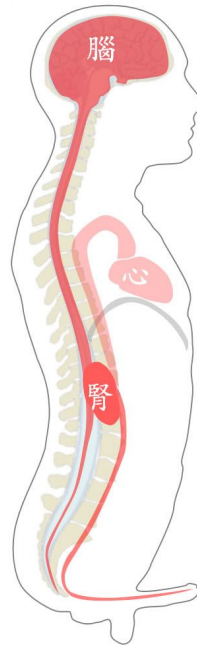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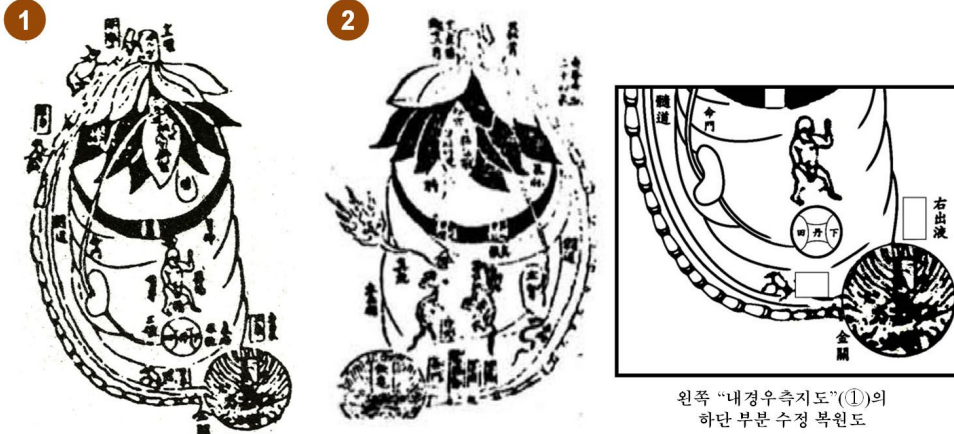


그림 9.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7)

II. 정액의 뇌척수 기원설 지지 장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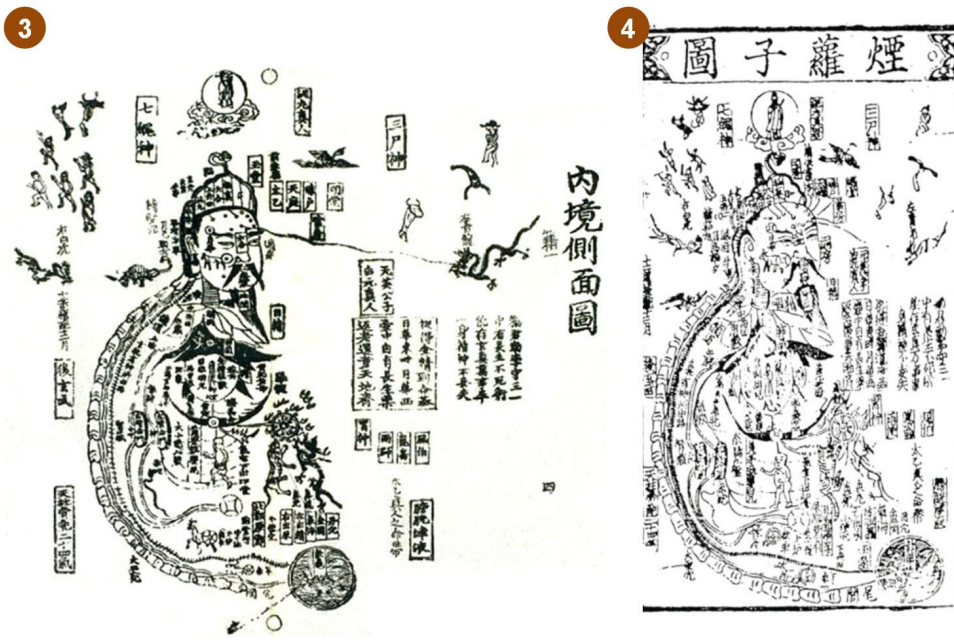
II.a 소위 煙蘿圖 계통의 장부도



『修真十書·雜著捷徑』
(936-944間) “內境右側之圖”

『修真十書·雜著捷徑』
(936-944間) “內境左側之圖”

왼쪽 “내경우측지도”(①)의
하단 부분 수정 복원도



『黃帝八十一難經注義圖序論』 (1269) “內境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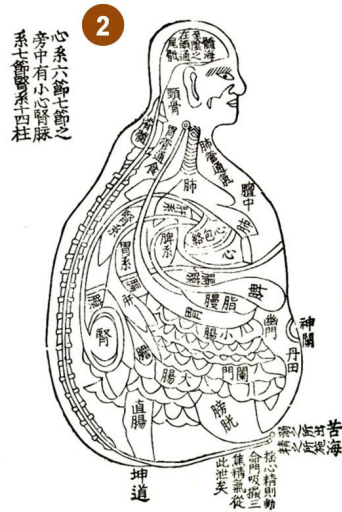
『纂圖增新群書類要事林廣記』 “煙蘿子圖”

그림 10.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8)

II.b₁ 『의학입문』 장부도와 同形인 장부도



『華佗玄門脈訣內照圖』의 장부도



『醫學入門』 (1575)의 “臟腑圖”



『新刻華佗內照圖』 (1631)의 장부도



『鍼灸要訣』 (1600)의 “內觀圖” (1925년 간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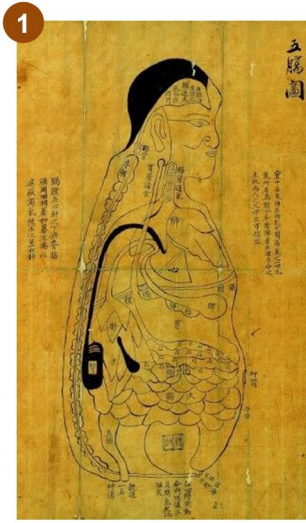
『性命圭旨』 조선 사본의 “臟腑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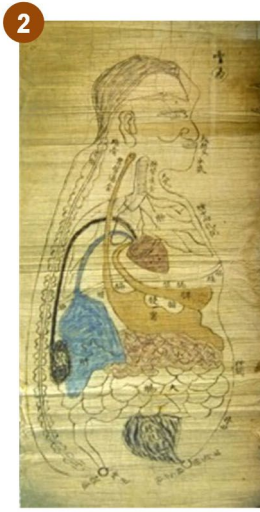
출처미상의 “明堂仰伏臟腑圖”

그림 11.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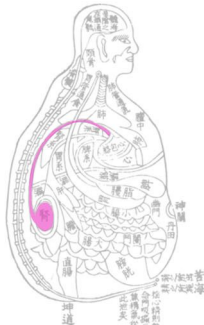
II.b₂ 『의학입문』 장부도와 유사한 장부도



연세대학교 東隱醫學博物館 소장 “五臟圖”



서울특별시 韓醫藥博物館 소장 장부도



참고: 화타현문맥결내조도와 의학입문 장부도의 심계(心系) 연결 묘사 비교

척수 기원 계열 장부도의 정액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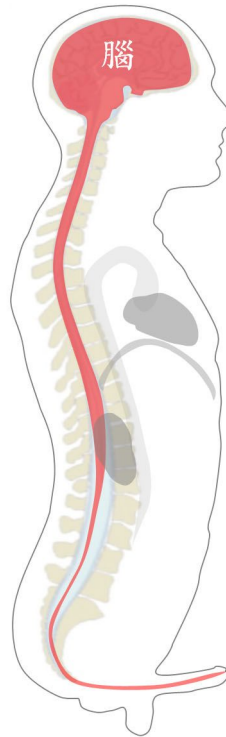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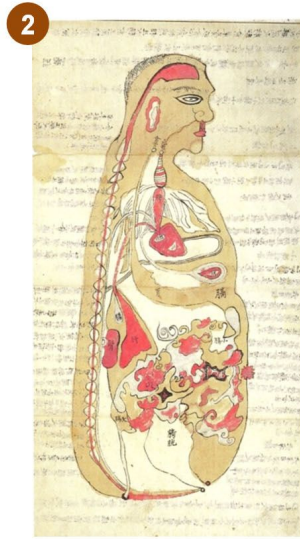


그림 12.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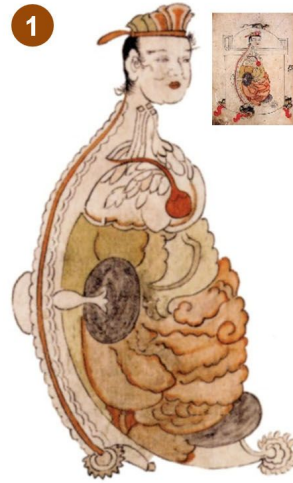
동일한 구도의 그림에서 정액 통로가 바뀐 사례



한국 전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五臟六腑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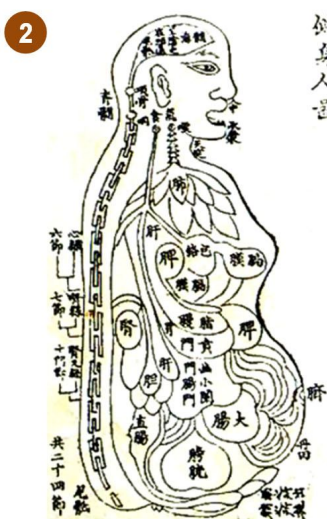


일본 『鍼灸篇』의 장부도
 (적수가 요도로 연결됨)



『鍼聞書』(1568)의 장부도
 (배경 제거. 原圖는 우상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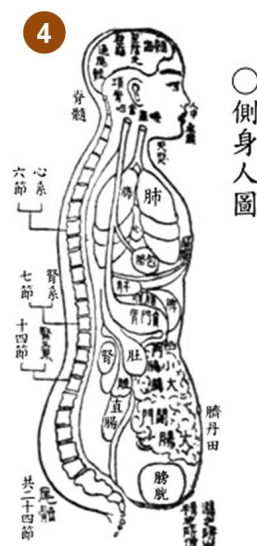
III. 정액 통로 묘사가 불분명한 장부도 - 『만병회춘』 側身人圖에서 비롯된 장부도 등



『萬病會春』(1587)의 “側身人圖”



『東醫寶鑑』(1613)의 “身形臟腑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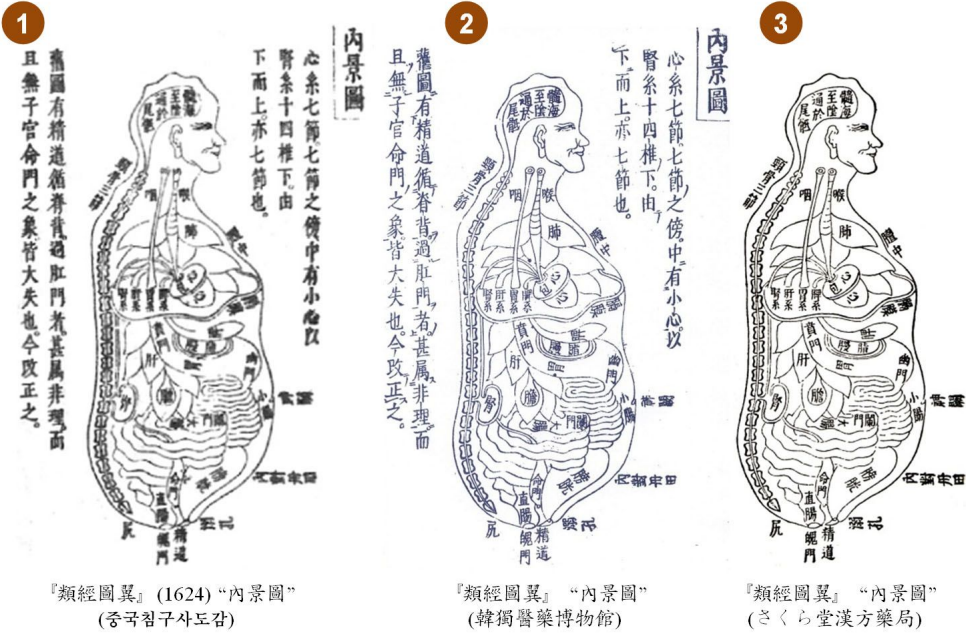


현대에 개작된 『萬病會春』 “側身人圖”

그림 13.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1)

IV. 정액의 신장 기원설 지지 장부도/제2계열

IV.a₁ 『유경도익』 여러 판본의 내경도



IV.a₂ 『유경도익』 내경도와 同形인 장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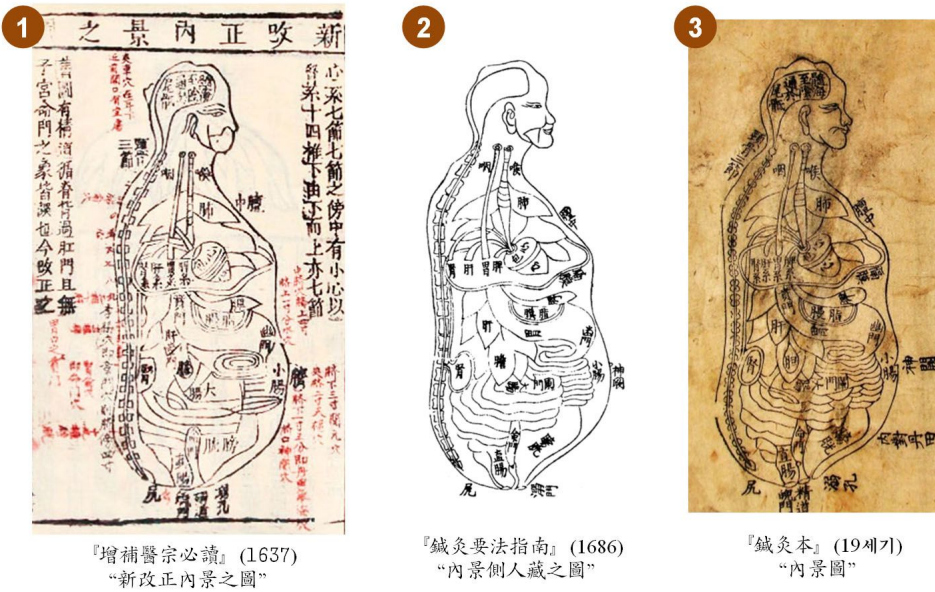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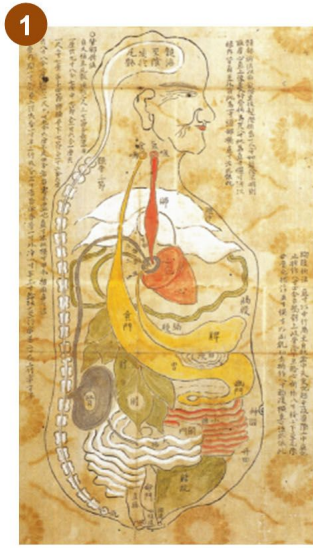


그림 14.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2)

IV.b 『유경도익』 내경도와 흡사한 채색 장부도



“人身五臟之圖”(1661)



岡本一抱子(1654-1716)
 自畫本“內景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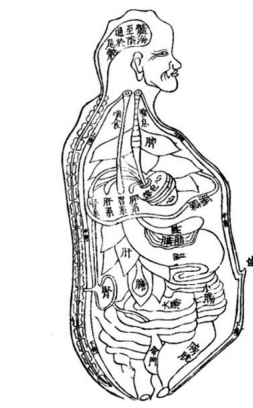
소위 “元祿解剖圖”(1702)



일본 Teachings of acupuncture with the copper doll (銅人腧穴針灸圖經?)의 “五臟圖”(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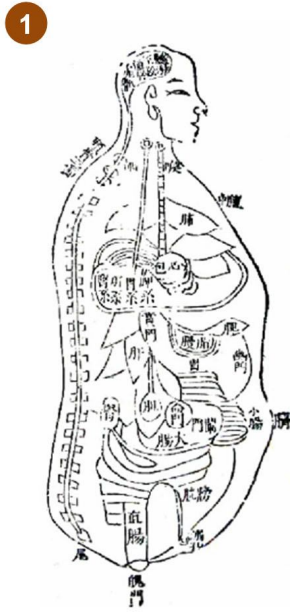
『陳氏秘囊錄』(에도시대 전~중기)
 “側人臟腑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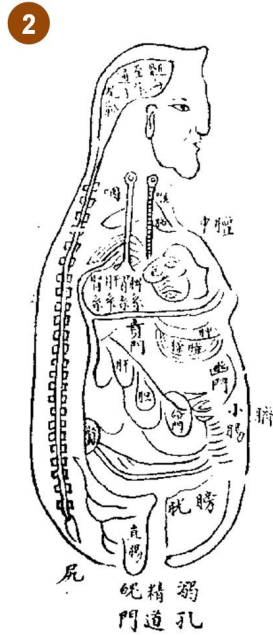
참고: 『鍼灸拔萃大成』(1698)의
 “藏府內景之圖”

그림 15.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3)

IV.d 『유경도익』 내경도 정액 통로의 원형을 잃은 사례



『瘍醫大全』 (출전 추정) (1760)
 “內景全圖”



출전 미상 문헌의 “改正內景之圖”



청대 말기 三益堂詳校
 『醫宗必讀』의
 “新改正內景之圖”



嘉慶五年(1800) 會成堂
 重鐫詳訂 『醫宗必讀』
 “新改正內景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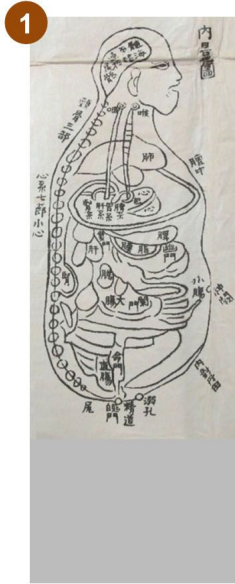
光緒甲申(1884)刊
 『醫宗必讀』의
 “新改正內景之圖”



민국시기에 간행된
 『醫宗必讀』의
 “新改正內景之圖”

그림 17.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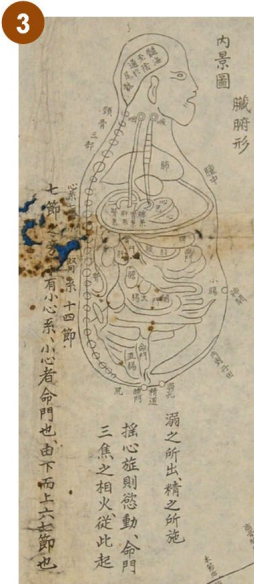
IV.e 『유경도익』 내경도에서 비롯된 현대(20세기)의 장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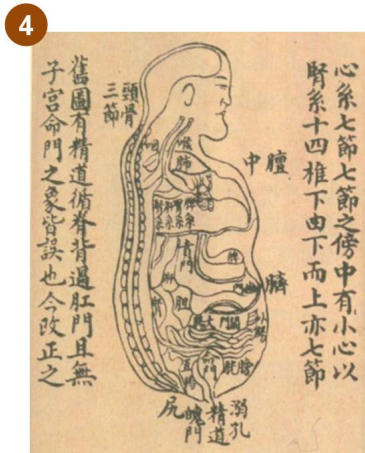
1922년 啓文社 洪鍾哲 간행 경혈도의 부가 그림. (Kobay 판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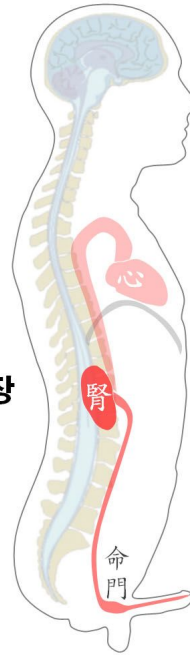
1939년 韓秉璉 원저, 李泰浩(杏林書院) 간행 “명당동인도”의 부가 그림. (book4949 및 Kobay 판매품)



같은 그림. 훈육선 판매품.



1955년 上海錦章書局石印本 『醫林改錯』 에 삽입된 “新改正內景之圖”



신장 기원 2계열 장부도의 정액 통로

그림 18.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6)

IV.f 『유경도익』 내경도의 구조를 가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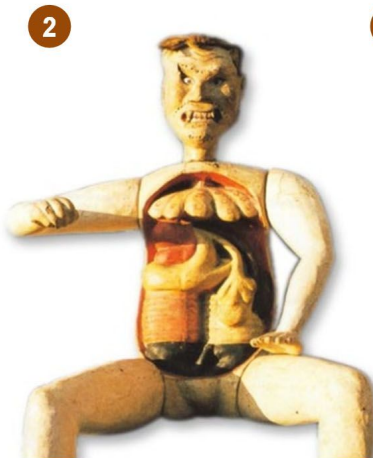


歌川國貞(1786~1865) 이 그린
 “飲食養生箋” (문자 제거)

華坊兵藏 지음, 『五臟はなし』
 표지그림 (배경 제거)

에도 중기의 장부도 (측인명당도의 자세에 유경도의 내경도를 그려 넣은 것)

『유경도익』 내경도의 정액 통로를 보여주는 장부 모형



17~8세기의 일본 장부 인형 (미국 National Museum of Health and Medicine)

연대 미상의 일본 장부 인형 “臟腑神農像”
 (의사학자 眞柳誠 소개)

18세기의 일본 장부 인형
 (영국 Wellcome Library)

그림 19. 계통별로 분류한 측면 장부도(17)

측면장부도 계통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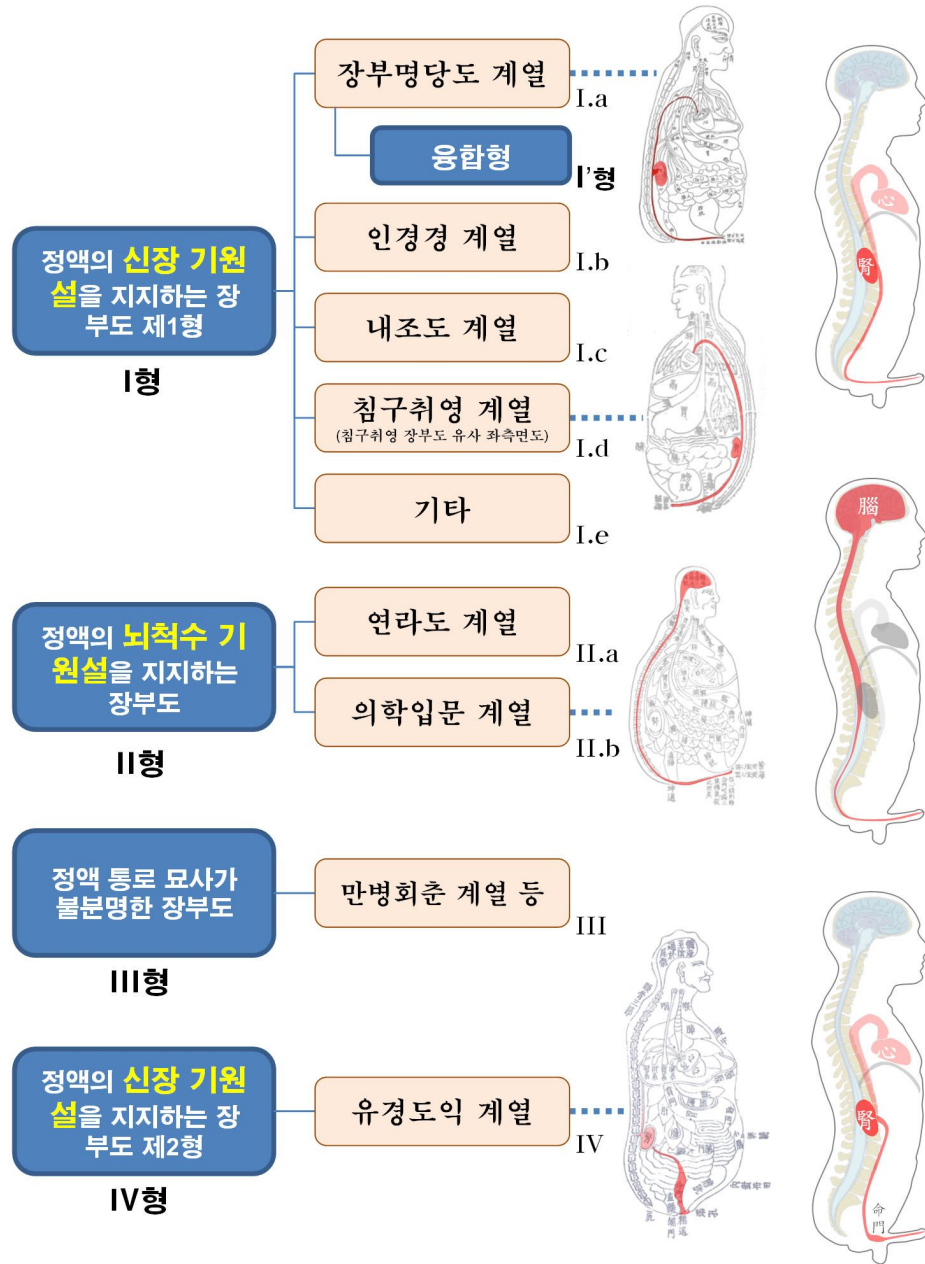


그림 20. 그림2~18에 도시한 장부도의 계통 요약.

그림 출전

본 논문의 그림 2~18에 수록된 장부도들은 고문헌 촬영, 현대 서적 스캐닝, 인터넷에서 내려받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된 참고문헌 인용 형식으로 그 입수 경로를 제시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되도록 상세히 자료 입수 경로를 밝히되 각 자료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식으로 소개한다.

<그림 2.>

- ① 樓英『醫學綱目』(1565初刊).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수록의 연대미상 도판에서 옮김.
- ② 영국 옥스포드대학 Bodleian Library 所藏 萬曆丁丑(1577) 吳崑校正, 乾隆壬寅(1782) 魏玉麟重鐫 臟腑明堂圖.
<http://www.bodley.ox.ac.uk/users/djh/serica/mingtangtu.html> 에서 옮김.
- ③ 영국 옥스포드 대학 Bodleian Library 所藏 乾隆癸卯(1783) 鄒啓華重鐫 臟腑明堂圖.
<http://www.bodley.ox.ac.uk/users/djh/serica/mingtangtu.html> 에서 옮김.
- ④ 中國針灸博物館所藏 嘉慶24年(1819年)重刊 明堂圖. 北京中醫藥數字博物館
<http://www.tcm-china.info/zjg/ctwwyz/zjx/zxz/71553.shtml> 에서 옮김.
- ⑤ 楊繼洲『鍼灸大成』(1601初刊)
清光緒年間(1875~1908)三義堂新鐫本.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 ⑥ 中國針灸博物館所藏 光緒丁未年(1907)石刻 明堂圖.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그림 3.>


- ⑦ 劉仕廉 『醫學集成』(1873初刊) 1914年 博文堂重印本. 中華中醫網
<http://www.zhzyw.org/zyts/zyzj/wh/105101635BFGKDC291159KC7.html> 에서 옮김.
- ⑧ 경매사이트 안동옥션 2010년 4월 5일 등재 경매품
http://www.andongauction.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sell_back&wr_id=199

&page=96

- ⑨ 百度百科 ‘臟腑明堂圖’ 조항
<http://baike.baidu.com/view/1060571.htm>
- ⑩ 부산 구덕골 문화장터 경매품(2009년 3월).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userId=mooyong&logId=3777722> 에서 옮김.
- ⑪ 중국 彭雄(인명) 家藏本 清代(추정) 필사 채색 장부명당도. 중국 巴蜀論壇 등재 문서
<http://www.phoer.net/bbs/viewthread.php?tid=23536> 에서 옮김.

<그림 4.>

- ① 출처 미상의 청대 후기(19세기 전후로 추정)의 채색 장부명당도. 중국 看中國網(Show China) 등재 문서 ‘中國傳統醫藥-臟腑與藏象’ 삽입 그림
<http://www.zhuchiren.org/jjzg/bwzg/200812/t250052.htm>
- ② 저자, 연대 미상 “신형전도” 에 포함된 장부도 (훈옥션 경매품)
http://www.hanauction.com/htm/off_auction_read.htm?id=16447&off_id=61&page=1&ac_num=457&PHPSESSID=912f1b0c7da8c3d59cb701d724c2c441
- ③ 저자, 연대 미상 “장부명당도” (금요고서방 경매품)
http://kumyo.co.kr/htm/productlist_detail.htm?brandcode=0010020000000000988
- ④ 북경중의약대학도서관 소장본. 三槐堂 王獻廷 그림. 中華中醫網 등재문서 ‘民國四年重繪明堂圖’.
<http://www.zhzyw.org/zyts/zyzj/wh/105111037J0A57H4HCCHE09H.html> 에서 옮김
- ⑤ 출처 미상의 채색 장부명당도(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정).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수록의 연대 미상 도판. 본래 1990년대 중반 대한한의사협회 홍보 팸플릿 『한국의 한의학』에 실린 그림이었음.
- ⑥ 경기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조선시대 장부도. 유물번호 000980-000.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w_d&mcwebmno=117967 에서 옮김.
- ⑦ 華峰文庫 경매 웹페이지 2011년 11월 23일 등재

경매품 

http://auctionmall.hwabong.com/shopmall/shop_content.jsp?page=1&cate=A07&code=A07000336&select=0&searchdate=null&searchtype=null&searchquery=null&listtype=1



<그림 5. 상단>

- ① 『臟腑證治圖說人鏡經』(원저자 미상, 명대 錢雷 증보, 청대 張俊英 재증보[1662])의 雍正11年(1733년) 사본. 萃華·汪子春·許維樞 『中國古代生物學史』(1989)에서 옮김.
- ② 출처 미상의 『臟腑證治圖說人鏡經』 사본. 中國知網·數字出版物超市 http://mall.cnki.net/reference/ref_readerItem.aspx?bid=R200607135&recid=R20060713500032 에서 옮김.
- ③ 간행년도 미상의 『醫學原始』 內景全圖.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그림 5. 하단>

- ① 『秘本十四經脈穴歌』(『道藏』收載 도서의 하나)에 실린 內照圖. 吉元昭治 『도교와 불로장수의학』(원제: 道教と不老長壽の醫學)에서 옮김.
- ② 모 도교 서적(함께 수록된 약간의 본문으로 추정해 볼 때 『성명규지』로 생각됨)에 실린 內照圖. 보스턴 메사추세츠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의 ‘Taoist images’ 웹페이지 http://www.faculty.umb.edu/gary_zabel/Courses/Phil%20100-08/Taoism/Taoist%2520images.html 에서 옮김.
- ③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性命圭旨』 조선 사본에 실린 內照圖.
- ④ 웹사이트 “性命雙修, 成就佛心”에 실린 『性命圭旨』 전자문서 <http://prolife.forumotion.net/t67-topic> 에서 옮김.
- ⑤ 웹사이트 “道教學術資訊網站”에 실린 『性命圭旨』 전자문서 <http://www.ctcwri.idv.tw/CTCWRI-XMGZ/> 에서 옮김.

<그림 6.>

- ① 일본 국립공문서관 內閣文庫 소장본 『鍼灸聚英』삽도. 이시다히데미(石田秀實) 『기·흐르는 신체』(원제: 氣流れる身體)에서 옮김.
- ② 중국 북경대학 도서관 소장본 『王氏秘傳叔和圖註釋義脈訣評林捷徑統宗』의 “四十一難肝居太陰尚近離太陰不遠圖”. 영인본(中醫古籍出版社, 『北京大學圖書館 館藏 善本醫書』1987)에서 옮김. 화질 향상을 위해 도판 일부 수정함.
- ③ 같은 책의 “三十二難心肺在隔上圖”. 동일한 영인본에서 옮김.
- ④ 『針灸大成』 臟腑之圖. 苟萃華·汪子春·許維樞 『中國古代生物學史』에서 옮김. 苟萃華 등은 이를 만력간본(萬曆刊本  1601년 간행본)이라고 하였으나 세부적 묘사 형태가 당시의 통상적인 목판본의 모습과 달라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함.
- ⑤ 독일 태생의 동인도회사 소속 무역상인·일본 연구자였던 클레이어(Andreas Cleyer, 1634-1698)의 Specimen Medicinae Sinicae (Examples of Chinese medicine, 1682)에 수록된 장부도. 독일 바이에른 주립도서관 소장본. 구글북스 전자 서적 http://books.google.co.kr/books/about/Specimen_Medicinae_Sinicae.html?id=VhdAAAAAcAAJ&redir_esc=y 에서 옮김. 화질 향상을 위해 도판 일부 수정함.
- ⑥ 영국 웰컴 도서관(Wellcome Library) 아시아 자료 모음(Asian collections) 유물 참고번호 Or Japanese MS 22. 이미지 주소  http://images.wellcome.ac.uk/indexplus/obf_images/c8/81/e26ab8ebe3e2bdc34d465823b9f1.jpg

<그림 7.>

- ① 박물관 도록 『허준박물관』(2006 再版)에서 옮김. 이 그림은 한국의 古書商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 함.
- ② 萬曆年間(1573-1620)에 간행된 吳文炳의 『神醫秘訣遵經奧旨鍼灸大成』.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일본 국립 공문서관 內閣文庫 소장본 그림일 것으로 추정됨.

- ③ 간행연도 미상의 『古今醫統大全』 사본 삽도. 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에서 옮김.
- ④ 宗田一, 『圖說日本醫療文化史』(思文閣出版社, 1993)에서 옮김. 배경 및 문자, 설명선 제거. ※어떤 학자는 이 장부도가 華佗內照圖와 동일하다고 주장(Saiichi Mishima, The History of Ophthalmology in Japan, 2004. p.134).
- ⑤ 일본 出版科學總合研究所 간행 『鍼灸醫學典籍大系』(1979)에 수록된 『經穴纂要』영인본에서 옮김.

<그림 8.>

- ①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이 책과 世界針灸門戶(ACUtimes) 웹사이트 수록 문서 <http://cn.acutimes.com/zyxz/show.php?itemid=101> 에 의하면 이 그림은 賀善仁(1926-)의 개인 소장품이라고 함.
- ② 上海古籍書店(博古齋) 2008년 동계 예술품 경매 [冬季藝術品拍賣會] 경매품. http://pmgs.kongfz.com/detail/6_69294/ 에서 옮김.

<그림 9.>

- ① 『正統道藏』(1445) 영인본의 그림. 吉元昭治 『도교와 불로장수의학』(원제: 道教と不老長壽の醫學) 에서 옮김.
- ② 『正統道藏』(1445) 영인본의 그림. 천진고적출판사 영인 1987년판. 성민규·정창현, 身形藏府圖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1권 3호(2008)에서 옮김.
- ③ 『正統道藏』(1445) 영인본의 그림. 취득 웹페이지 주소(url) 소실.
- ④ 웹사이트 “影像與醫療的歷史” 등재 자료 <http://www.ihp.sinica.edu.tw/~medicine/ih/images/image-15.pdf> 에서 옮김.

<그림 10.>

- ①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黃龍祥은 이 그림이 嘉靖年間(1522~1566)의 판본에 수록된 것이라 했는데, 미국 하버드대학 燕京圖書館 (Yenching Library) 소장 1465年刊(구글북스 기록)

『養生集覽五種』에 收載된 『화타현문맥결내조도』의 장부도와 형태가 동일하다.

- ② 국내 동행본 『의학입문』 영인본의 장부도. 윤한의원 홈페이지 http://yoonhani.co.kr/YZboard/view.php?id=15&code=new_04&start=10&s_que=&mode=&field=&page=11 에서 옮김.
- ③ 일본 京都大學 富士川文庫 소장 新刻華佗內照圖 (日本寬永8年=1631年, 일설에는 寶永8年=1711년)
- ④ 柳成龍의 자료에 근거하여 1925년 朴麒祚가 書寫하고 柳伍榮이 편집·발행한 『침구요결』.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
- ⑤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성명규지』 조선시대 필사본 촬영.
- ⑥ 북경중의약대학 中醫藥數字博物館의 고대의학교육 설명 자료 http://202.204.40.197/jingtai/yishi/scripts/2008zy_jiaoyu/list_yixuejiaoyu_gudai_song.htm 에서 옮김. 독일의 침구 관련 웹사이트 www.akupunktur-regensburg.com 에도 같은 그림이 실려 있음. 홍콩 출판 도서 『醫通東西』(2006) 표지에도 유사한 그림이 실려 있음.

<그림 11.>

- ①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오장도”. 그림 파일 입수 경로는 이미 잊어버려 밝히지 못함.
- ② 한의사 ‘은빛연어’ 블로그 등재 사진(수정함) <http://blog.naver.com/omed22/70089549187> 서울약령시 박물관의 소개 자료는 http://museum.ddm.go.kr/sub030301_view.asp?bidx=3179&st=&sech=&page=13

<그림 12 상단.>

- ① 전주대학교 박물관 소장 오장육부도. http://www.emuseum.go.kr/relic.do?action=view_w_d&mcwebmno=85953 에서 옮김.
- ② 長野仁 해설, 大阪, 학교법인 森ノ宮醫療學院 발행 『はりきゅうミュージアム, 銅人形・明堂圖篇』(침뜸 뮤지엄, 동인형·명당도편) (2001)에서 옮김.

<그림 12 하단>

- ① 長野仁·東昇 편, 『戰國時代のハラノムシ-《針聞書》のゆかいな病魔たち』(전국시대의 기생충-『침문서』의 유쾌한 병마들) 東京, 주식회사書刊行會. 2007(초판 1쇄). p.92.
- ②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만병회춘』의 側身人圖. 成敗奎의 연구(成敗奎, 『東醫寶鑑』 身形藏府圖 연구. 2009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30)를 참고할 때 金錫胄 간행본 『增補萬病會春』(1679)의 그림이라 생각된다.
- ③ 동의보감 영인본의 신형장부도. 판본·출처 미상.
- ④ <http://www.wskybbs.com/?dp=bbstthread-79679.html> 에서 옮김.

<그림 13 상단>

- ①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 ②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유경도익』
- ③ 일본 さくら堂 한방약국 웹사이트 www.sakurado-kp.jp/asa/naizoh 에서 옮김.

<그림 13 하단>

- ① <http://trade.findart.com.cn/oldjy.php?aid=1006438681> 에서 옮김. 이미지 수정.
- ② 일본 出版科學總合研究所 간행 『鍼灸醫學典籍大系』(1979)에 수록된 『鍼灸要法指南』영인본에서 옮김.
- ③ 조선 의서 『鍼灸本』의 內景圖. 훈옥선 2009년 2월 7일 경매품 http://www.hanauction.com/htm/off_auction_read.htm?id=8023&off_id=40&page=2&ac_num=281&PHPSESSID=403956f5875dc256cfa0f18104580180 ※ 『鍼灸本』은 1836년 중국[淸]에서 간행된 『太乙離火感應神針』에 약간의 내용을 더하여 새로 편집한 책임.

<그림 14.>

- ① 長野仁 해설, 『はりきゅうミュージアム, 銅人形・明堂圖篇』(침뜸뮤지엄, 동인형·명당도편), 大阪, 학교법인 森ノ宮醫療學院 발행. 2001. p.23에서 옮김.
- ② 『目で見るくすりの博物誌』(눈으로 보는 약의

박물지) P.19 삽도. 참고 <http://www.eisai.co.jp/museum/history/0300/sub0100.html> (저해상도 화상). 여기 수록한 원본 화상의 입수 경로는 기억하지 못함.

- ③ Screech Timon 저, 박경희 역 『에도의 몸을 열다』(원제: Opening the Edo Body) (2008) 표지 그림. 수정.
- ④ 미국 Wood Library-Museum of Anesthesiology 소장 『銅人臉穴鍼灸圖經』 正徳本の 오장도로 생각됨. 그림 수록 논문 <http://www.eisai.co.jp/museum/history/0300/sub0100.html> Lydia A Conlay, Patrick Sim. Acupuncture from East to West: Chinese Medicine and Therapeutics: Early Texts Represented in the WLM Collections.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Newsletter 2007; 71(9):11-15. 그림 원본은 웹페이지 <http://old.asahq.org/Newsletters/2007/09-07/sim0907.html> 에서 옮김.
- ⑤ 일본 長崎歴史文化博物館 소장 陳道庸 저 『陳氏秘囊錄』의 그림. <http://hiraokaryuji.web.fc2.com/brain.html> 에서 옮김.

<그림 15.>

- ① 『循經考穴編』 臟腑內景之圖.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 ② 『鍼灸重寶記(1718)』 五臟六腑內系の圖. 『鍼灸醫學典籍大系』에서 옮김.
- ③ 中醫古籍孤本大全 1324쪽 『羅氏延齡纂要(1822)』의 臟腑內景運氣圖
- ④ 經脈圖考(1878) 內景圖.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 ⑤ 內景新圖, 1815年刊 『내경도설』 삽화.九州대학부속도서관 의학분관 소장. 참고: http://www.lib.kyushu-u.ac.jp/hp_db_f/igaku/expl/hattori.html

<그림 16.>

- ① 瘍醫大全(1760) (출전 추정) 內景全圖
- ② 출전 미상(중국의학대성?) 改正內景之圖
- ③ http://www.kongfz.cn/end_item_pic_5532216/
- ④ http://www.kongfz.cn/his_item_pic_4991918/

- ⑤ http://www.7788jk.com/pr/detail_102_1766982.html
⑥ http://7788rmb.997788.com/s4_7336460/

<그림 17.>

- ① 1922년 한국 啓文社 洪鍾哲 간행 경혈도의 부가 그림. 고서 취급 업체 Kobay 판매품.
- ② 1939년 한국 行림서원 李泰浩 간행 “明堂銅人圖”의 부가 그림. 고서 취급 업체 book4949 및 Kobay 판매품.
- ③ 같은 그림. 훈옥선 경매품.
- ④ 黃龍祥 『中國針灸史圖鑑』에서 옮김.

<그림 18 상단.>

- ① <http://image.space.rakuten.co.jp/lg01/39/0000283339/19/imga23976a5zik4zj.jpeg>
- ② 일본 内藤記念くすり博物館 자료 소개 문서 http://www.naito-f.or.jp/jiho/pdf/84/84_114.pdf 에서 옮김.
- ③ 일본 九州大學 부속도서관 의학분관 소장 자료 『五臟はなし』(오장 이야기) 표지. <http://www.lib.kyushu-u.ac.jp/cgi-bin/icomb/thumview.cgi?lang=j&wayo=w&num=31&img=1#> 에서 옮김.

<그림 18 하단.>

- ① 미국 National Museum of Health and Medicine 소장 자료. <http://curiousexpeditions.org/?p=861> 에서 옮김.
- ② 일본 茨城大學(이바라키대학) 眞柳誠 교수가 소개한 모형. 2001년 한 수강생이 제보한 家傳 유물. 메이지 초기 작품으로 추정. 소개 문서 <http://mayanagi.hum.ibaraki.ac.jp/paper04/shiryokan/me168.htm> 에서 옮김. 사진 배경 제거.
- ③ 영국 웰컴도서관 소장 일본 장부 모형. 웰컴도서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http://images.wellcome.ac.uk/>) 자료 번호 L0058717의 사진.

참고문헌

<단행본>

1. 任應秋 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2. 黃龍祥 著. 中國針灸學術史大綱. 北京. 華夏出版社. 2001.
3. 黃龍祥 編. 中國針灸史圖鑑. 青島. 青島出版社. 2003.

<논문>

1. 鄭遇悅, 李鎮弘, 田炳薰. 東醫寶鑑의 身形臟腑圖와 許浚의 醫學思想. 大韓東醫病理學會誌. 1996. 10(2). pp.1-11.
2. 成旼奎, 丁彰炫. 身形藏府圖에 관한 비교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3). pp.165-175.
3. 成旼奎, 『東醫寶鑑』身形藏府圖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4. 한봉재, 오준호, 서지연, 김태은, 홍세영, 윤성익, 차웅석, 김남일. 華佗玄門內照圖의 형성과 본문편제. 大韓經絡經穴學會誌. 2006. 23(4). pp.15-25.
5.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pp.68-78.
6. 潘萍, 郭義, 王東強. “明堂圖”源流簡考. 針灸臨床雜誌. 2008. 24(5). pp.1-3.
7. 章增加. 試論精室理論的源流、實質及其意義- 兼與精室丸論商榷.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8. 14(11). pp.826-7.
8. 高兆旺, 張麗, 劉慶中. 論精室的解剖與生理.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2. 26(5). pp.330-2.
9. 李其鳳. 腎臟藏精在“精室”. 中醫雜誌. 2010. 51(增刊2). p.50.

<기타 매체>

1. 中華醫典(簡體版)[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